범어사 독립운동 기록들을 망라하다

범어사 성보박물관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

대한민국임정기념관 공동으로
오는 4월 13일까지 전시 진행
"범어사 주요 인물들 독립 활동
숭고한 업적들을 기리는 자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산 범어사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스님들의 삶의 궤적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공동으로 3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2층 기획전시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을 개최한다. 3.1절 106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범어사와 관련된 독립운동의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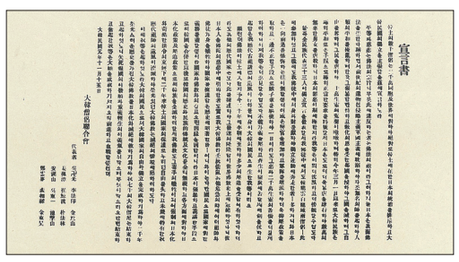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전시는 총3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 '범어사와 3.1운동'에서는 범어사 근대교육기관의 역할 및 3.1운동 참여와 백용성 스님·만해 한용운 스님·오성월 스님·김법린 등 범어사 관련 인물들의 임시정부 활동을 집중 조명한다.

범어사는 1919년 3월 7일 부산 동래장터에서의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독립운동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백용성 스님, 만해 한용운 스님, 오성월 스님, 김법린 등 범어사의 주요 인물들은 불교적 신념을 넘어 민족독립을 위한 활동에 헌신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했다. 전시에서 이들의 독립 활동을 보여주는 유물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백용성 스님(1864~1940)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는 불교를 통해 민족정신을 지키고, 일본의 사찰령에 맞서 '건백서 제출사건'을 주도하며 불교 부흥운동을 이끌었다.

만해 한용운 스님(1879~1944)은 불교계 민족대표로 독립운동과 시문학을 남긴 중요한 인물이다. 1911년 일본 불교의 침탈을 막기 위해 임제종 운동을 주도하고, 범어사와 깊은 인연을 맺으며 3.1운동에 참여했다. 1919년에는 '대한승려연합회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며 불교가 독립항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범어사 경성포교당을 통해 임시정부와 불교계의 연결 역할을 했으며, '용성대선사사리탑비록서문'을 통해 용성 스님의 업적을 기리기도 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 소장 만해 한용운 스님 필첩. '부처님의 빛이 나의 마음 속에 가득히 비치도다' 라고 쓰여있다.


1919년 11월 15일 중국 상하이에서 발표된 대한승려연합회 독립선언서.


김법린의 프랑스 파리 유학시절 사진. 앞줄 오른쪽 두 번째가 김법린이다.

오성월 스님(1866~1943)은 3.1운동을 후원하고 대한승려연합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불교계 독립운동의 선구자였다. 그는 범어사의 선찰대본산의 사격을 확립하고, 명정학교와 지방학림 등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인재 양성에 힘썼다. 오성월 스님은 임시정부 고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범어사의 자금이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되도록 하여 항일운동을 지원했다.

김법린(1899~1964)은 1919년 만세운동 후 중국 상해로 망명, 한국민단본부 대표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했다. 그는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단체 간 연결을 시도하고, '화신공보'를 발간해 독립운동 소식을 전파했다.

'군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설립과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을 다룬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수립되어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로서 활동을 시작했으며, 외교, 군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며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전시에서는 이 과정에서 임시정부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과 그들이 직면한 도전들을 살펴본다.

3부 '임시정부에서 정부로'에서는 1948년 건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헌법, 국호, 태극기, 애국가 등 중요한 요소들을 계승한 이야기를 다룬다. 임시정부는 광복 후 한국으로 돌아와 혼란 속에서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제 정부로서의 의미를 되새기며, 독립운동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끼친 영향을 강조한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전시와 함께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지와 퀴즈를 제공하여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장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은 "독립운동가들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으며 희생을 감내한 진정한 보살의 모습"이라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힘차게 나아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미래로 이어지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봉선사, 청소년 대상 연극 템플스테이

강윤아 교수 일인극 선보여
'아름다움' 매개로 사유 선사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가 2월 23일 경내 휴월당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형 연극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사진〉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강윤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연극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찾아 떠난 소녀의 이야기'를 새롭게 선보였다. 연극은 아름다운 노래를 찾아 떠나는 소녀의 여정을 노래와 스토리텔링으로 재현한 소규모 일인극(공연 시간 60분)이다. 청소년 관객을 위한 공연으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무엇일까'에 대해 질문들 던지고, 관객들이 각자의 삶에서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강윤아 교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서 아동청소년극을 연구·교육하고 있다. 저서로는 청소년 시절 연극 경험을 다룬 자전적 연구 '그대를 찾아서'와 '유럽 영유아극 예술가들과의 대화' 등이 있다. 강 교수의 창작 희곡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찾아 떠난 소녀의 이야기'는 한국아동청소년극협회(아시테지) 창작 희곡선 수록작이다. 종교기관, 수련관, 학교, 도서관 등 청소년이 있는 곳을 찾아 '아름다움'을 매개로 소통하는 2025 순회 프로젝트 '세상에서'의 일환으로 템플스테이도 기획됐다.

연극 템플스테이를 기획한 봉선사 연수국장 청호 스님은 "이번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정해서 진행했지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여러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대행선, 구조로 살펴보다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
3월 15일 안양본원서 개최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가 전했던 대행선의 구조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3월 15일 오후 1시 30분 안양본원 3층에서 제22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계절발표회에서는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구조로 보는 대행선: 대행선의 대중화를 위한 시론'을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김은영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오진영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참여한다.

또한 이번 계절발표회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특강도 진행된다. 첫 강사로는 양형진 고려대 교수가 참여하며 '현대물리학으로 보는 불교-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으로 보는 연기와 무아의 진공묘유'를 주제로 강연한다. 강연 이후에는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와 대담도 진행된다.

한편, 2023년부터 시작한 한마음선원 지원 소개에서는 중부경남지원장 혜춘 스님이 도량 현황과 불사 과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예술에 깨달음을 녹여내다

타라하우스, '깨달음 비전'展
이난 작가 1주기 추모 담아

마이트리야 상가 타라하우스는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조계사 내 나무갤러리에서 '깨달음의 비전-이난과 친구들'이라는 주제로 여류 작가 3인 고(故)이난〈사진〉, 엄승희, 효천 윤석희의 작품을 전시한다.



마이트리야 상가는 붓다의 가르침 아래 함께 수행의 길을 걸어갔던 도반이자 탱화작가였던 고 이난의 1주기를 기리며 그녀의 예술혼을 되돌아 보기위해 이번 전시회를 기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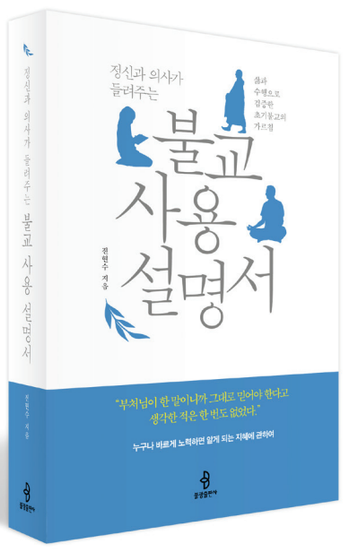
원래 현대미술 작가였던 이난은 티베트 불교를 접하고 수행을 길을 걸어오며 20여년 전부터 탱화 작가로서 길을 걸어왔으며, 그녀의 작품들은 중앙아시아와 히말라야 지역에 걸쳐져 있는 불교미술의 전통을 녹여내면서도 작가만의 시각과 해석을 통해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협업 작가로 함께 전시회에 참여하는 엄승희는 불교미술에 다양한 현대미술의 기법을 적용한 작품을 선보이며, 효천 윤석희는 동판을 소재에 불교미술을 접합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신중일 기자

국내 최초 '불교정신치료'를 개척한 정신과 의사 전현수 박사,
40년간의 공부와 수행으로 검증한 불교를 말하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부처님이 한 말이니까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크고 작은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괴로움은 점점 줄어든다. 나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기 전에는 괴로움이 있었다. 좋을 때도 있었지만, 괴로움은 계속되었다. 이때는 이래서 괴로웠고, 그때는 그래서 괴로웠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이해하고 실천하니 그런 괴로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괴로움 없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 본문 중에서

정신과 의사가 들려주는
불교 사용 설명서
삶과 수행으로 검증한 초기불교의 가르침
전현수 지음 | 640쪽 | 30,000원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

'마음을 씻는 경전' 세심경洗心經 『주역』
핵심만 알아도 세상 문리가 트인다!

동양철학 최고 고전 『주역』의 인문학을 섭렵하는 순간,
세상 이치와 통하는 인생 경영의 키를 쥐게 된다!



세계적 인물들이 극찬한 『주역』

『주역』을 가죽끈이 3번 떨어질 정도로 읽은 공자
"배우게 된다면 큰 허물은 없을 것"

『주역』을 500번 탐독한 탄허 스님
"불교를 제외한 최고의 철학!"

『주역』과 무의식을 접목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책"

마음을 씻고 세상을 꿰뚫는 경전
주역의 눈
이선경 지음 | 272쪽 | 20,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